

있다. 도 지정문화재로 유형문화재 304점, 무형문화재 27점, 기념물 130점, 민속문화재 20점, 문화재 자료 84점이 있다.

문화예술행사 충북예술제, 충북민속예술제, 청주 예술제, 충주 탄금대 가야금경연대회, 제천 의병제,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보은 오장환 문학제, 옥천 지용제, 영동 난계국악축제, 증평 인삼골축제, 진천 생거진천문화축제, 괴산 예술제, 음성 설성문화제, 단양 온달문화축제 등이 열린다.

의회활동

원구성

〈의 장〉 이언구

〈부의장〉 김봉희, 박종규

〈정당별 의석〉 새누리당 2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무소속 1명이다.

의정활동 2015년에는 6회의 임시회와 2회의 정례회 등 총 8회 116일간에 걸쳐 도의회를 운영했다. 회기 중에는 도정보고 청취 3회, 대집행부질문 8회 15명, 행정사무감사, 조례·예산·건의안 등 212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수시로 연찬회와 현지 점검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연안을 해결하기 위해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우 반대 건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결의,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 수 축소 반대 건의안, 밥쌀용 쌀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촉구 건의 등 7건의 대정부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2015년 11월 13~24일 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106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고, 255건에 대해 건의 및 촉구를 했다.

북부에 거점을 두고 점차 남하, 舊마한지역을 통일하고 이 고장을 중심으로 백제를 형성했는데, 그 후 백제, 고구려, 신라가 공존하다 신라가 唐과 힘을 합쳐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켰으며, 이곳에 도독부를 설치한 뒤에는 우주라 칭했다.

통일신라가 후백제, 후고구려로 분열되어 936년에 고려시대에 다시 통합된 뒤에는 하남도라 일컬어졌으며, 공민왕 5년에 충청도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 조선시대 들어 인조 때는 공청도, 정조 원년에는 홍충도로 불렸으며, 순조 34년(1834년)에 다시 충청도로 환원됐고, 고종 33년(1896년) 남북도로 나누어졌다.

1932년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겨졌고, 1935년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됐다가 정부의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1949년 8월 15일을 기해 대전시로 개칭돼 도는 1시 14군에 이르렀다.

이어서 1963년 천안읍이 시로, 당진면과 대천면이 읍으로 승격, 1973년 신탄진, 유성, 삽교, 합덕, 태안, 성환 등 6개면이 읍으로 승격, 1983년 대덕군, 유성읍, 회덕읍 일원과 구죽면, 진잠면, 탄동면 일부가 대전시로, 보령군 오천면 삼시도리 일부가 서산군 안면읍으로, 서산군 고북면 대사리와 홍성군 결성면 외리가 홍성군 갈산면으로, 천원군 풍세면 구룡리가 천안시로 각각 편입됐다.

1986년 공주, 대천, 온양읍이 시로 승격되고 보령군 미산면 성주출장소가 성주면으로, 안면읍 고남출장소가 고남면으로 각각 승격됐다.

1987년 1월 1일 대전시와 대덕군이 대전직할시로 분리됐고, 서산군 서산읍이 시로 승격됐으며, 1989년 1월 1일에는 서산군 내의 태안읍,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을 분리해 태안군으로 편입시켰다. 또 1990년 2월 27일 군사·문화거점도시로 발돋움할 논산군 두마면 일원에 계룡출장소가 신설됐고, 4월 1일에는 아산군 염치면이 염치읍으로 승격됐다.


1990년 12월 31일 천원군이 천안군으로 개칭됐으며, 1991년 11월 30일 대신면이 대신읍으로 승격됐고, 1994년 7월 1일 천안시 성춘동이 성정 1동과 2동으로 분동됐다.

1995년 1월 1일 공주시·군을 공주시로, 대전시와 보령군을 보령시로, 온양시와 아산군을 아산시로, 서산시·군을 서산시로 각각 통합 개칭했으며, 3월 1일에는 충청북도 청원군 강의면 심종리 일원을 연기군으로 편입시키고,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갈산리 일원을 충청북도로 편입시켰다.

또한 1995년 3월 1일에 공주시 유구면과 보령시 웅천면이 각각 유구읍과 웅천읍으로 승격됐고, 1995년 5월 10일 천안시·군의 천안시 통합에 이어 1996년 3월 1일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 2002년 1월 1일 천안시 직산면과 목천면이 읍으로 승격, 2003년 9월 19일 논산시 두마면 일원이 계룡시로 승격, 2010년 1월 1일 당진군 송악면이 송악읍으로 각각 승격됐으며, 2012년 1월 1일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승격했다.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해 연기군은 세종시로 편입됐으며 또한, 충남도청은 2013년 1월 1일 대전광역시에서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로 이전했다.

면적·행정구역 2015년 12월 말 현재 행정구역은 8시 7군 24읍 137면 46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2천94 법정동·리와 5천525 행정동·리, 2만4천247개의 반이 있다.




道花 : 국화 **道鳥** : 원앙

道木 : 능수버들 **캐릭터** : 충청이와 충나미

도청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도지사 : 안희정(安熙正)



개관

연혁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요람지인 충청남도는 원래 마한의 북방경계였으며, 삼한시대 최고의 문화 중심지였던 월지국이 지금의 천안에 자리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원전 18년에 북부여 온조가 남으로 내려와 충청남도 등

충청남도 면적·가구·인구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km ²)	가구	인구(명)
합 계	8,213.36	885,968	2,077,649
천안시	636.13	247,695	605,776
공주시	864.27	48,632	111,261
보령시	569.42	46,739	104,754
아산시	542.17	122,131	297,737
서산시	740.83	69,993	170,099
논산시	554.73	56,095	124,232
계룡시	60.71	14,397	41,730
당진시	704.26	72,074	165,122
금산군	576.72	25,154	54,879
부여군	624.35	32,733	71,143
서천군	358.12	26,622	56,910
청양군	479.22	15,226	32,485
홍성군	443.98	41,008	94,553
예산군	542.35	37,488	83,484
태안군	516.10	29,981	63,484

재정

세입예산 도와 시·군을 합쳐 2016년에 총 15조3천775억원으로 일반회계 12조8천655억원, 특별회계 2조5천120억원이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 2조6천665억원, 세외수입 4천289억원, 지방교부세 2조9천305억원, 교부금 3천466억원, 보조금 5조3천971억원, 지방채 377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조582억원이다. 특별회계 중 세외수입 6천154억원, 교부금 2억원, 보조금 4천883억원, 지방채 1천855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조2천226억원이다.

세출예산 세입예산과 같은 15조3천77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 1조86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4천745억원, 교육 3천828억원, 문화 및 관광 7천406억원, 환경보호 1조1천175억원, 사회복지 3조1천595억원, 보건 2천778억원, 농림해양수산 2조2천244억원, 산업중소기업 2천596억원, 수송 및 교통 6천68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8천855억원, 과학기술 198억원, 예비비 1천71억원, 기타 1조3천982억원이다.

특별회계는 일반공공행정 8천3억원, 교육 45억원, 문화 및 관광 123억원, 환경보호 7천305억원, 사회복지 2천738억원, 농림해양수산 436억원, 산업중소기업 1천273억원, 수송 및 교통 46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천974억원, 예비비 181억원, 기타 575억원이다.

중점 추진사업

2015년은 실질적인 민선 6기 첫 해로 민선 5기에 뿌린 씨앗을 잘 가꾸어 꽃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공정과 신뢰라는 사회적 가치를 높여가면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사회양극화 등 우리 시대가 직면한 위기와 과제를 풀어

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지난 20세기 경부축을 기반으로 산업화를 이루었듯이 이제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른바 '21세기 환해아시아 경제 시대'를 우리 충남이 주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는 한해였다.

「3대 혁신」 추진으로 지역역량 강화 외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혁신'을 추진해 지방자치 성숙에 따라 광역정부로서 도의 역할과 기능변화, 도민의 행정참여 욕구 및 고품질 정책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했다.

창조성이 강조되는 미래사회,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결정·실행하는 자치역량 교육 등 '자치혁신'을 추진해 도민이 도정의 주인으로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했다.

농어업·농어촌을 이끌어 갈 충남형 지역리더 육성, 변화를 선도하는 충남 농업을 위한 '3농혁신' 추진으로 FTA 시장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3대 행복」 추진으로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 대응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행복한 성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지역순환체계 구축, 서민경제 안정, SOC 확충 등 각 산업영역 간 고른 성장, 질적 성장 생태계를 구축했고, '행복한 권리'

2016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 입	15,377,570	12,865,493	2,512,077
지방세수입	2,666,497	2,666,497	-
세외수입	1,044,277	428,866	615,411
지방교부세	2,930,557	2,930,557	-
조정교부금 등	346,783	346,583	200
보조금	5,885,433	5,397,106	488,327
지방채	223,237	37,717	185,52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80,786	1,058,168	1,222,619
세 출	15,377,570	12,865,493	2,512,077
일반공공행정	1,886,461	1,086,129	800,332
공공질서 및 안전	474,504	474,504	-
교육	387,307	382,823	4,484
문화 및 관광	752,934	740,637	12,297
환경보호	1,847,950	1,117,501	730,449
사회복지	3,433,279	3,159,519	273,760
보건	277,795	277,795	-
농림해양수산	2,268,041	2,224,421	43,620
산업·중소기업	386,939	259,586	127,353
수송 및 교통	714,806	668,057	46,749
국토 및 지역개발	1,282,915	885,490	397,425
과학기술	19,814	19,814	-
예비비	189,125	171,054	18,071
기타	1,455,700	1,398,163	57,537

를 위해 인권과 따뜻한 복지, 생명과 재산보호, 평생교육, 생활 속 체육 증진 등 세대, 계층, 남녀 구분 없는 권리로서의 생존권 보장에 노력했다.

‘행복한 환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문화인프라 구축, 문화유산 계승·발전 등 하늘·땅·바다, 역사·문화·환경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해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의 성과 가시화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충청권에서는 처음이자 우리나라에서는 12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으로 도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및 SOC 사업 감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해안 중심축 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내포신도시 조기 활성화, 문화 및 R&D 사업 등 다방면에서 지역현안을 풀어나갔다.

특히, 서해선 복선전철 기공식, 천안-당진 고속도로 사업 발주, 제2서해안 고속도로 실시설계 착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실용화 육성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됐다.

그러나 메르스라는 전대미문의 질병과 사상초유의 충남지역 가뭄사태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어야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생명과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충남도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한해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 서해안 비전, 환황해프로젝트, 충남 경제비전 수립·실천을 통해 지역발전 동력을 마련하고,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수립한 중장기계획을 착실히 실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지방의 현실이 불합리한 정책개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통해 충남의 과제이자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봉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산 업

농업 농어업인구는 2015년 말 기준 14만4천564가구에 35만52명이고, 경지 면적은 2014년 말 기준 논 15만4천ha, 밭 6만4천ha 등 모두 21만9천ha로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은 1.61ha이다. 생산 농산물은 2015년 말 현재 미곡이 82만8천, 맥류 163, 두류 8천489, 서류 5만6천127 등 식량작물이 89만4천238이고, 2014년 말 현재 잡곡 1천459, 채소류 11만4천740, 과실류는 11만8천791이다.

또한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에서 공공비축제로 전환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공공비축제로 산물벼 66만6천493포대/40kg, 포대벼는 216만4천165포대/40kg으로 총 283만658포대/40kg를 매입했다.

임업 2015년 말 산림면적은 41만4천ha로 국유림 3만1천ha, 공유림 2만ha, 사유림 36만1천ha이다. 소관별 국유림이 7.6%, 공유림 5%, 사유림 87.4%이며 소유 규모별 산주현황은 3ha 미만 22만1천904명(90%), 3~5ha 1만2천166명(5%), 5~300ha

이상이 1만3천177명(5%)을 차지한다.

순임산물 생산액은 3천360억2천200만원으로 전국 3조2천84억1천800만원의 10.5%를 차지하며, 임산물 생산량은 밤·호두·잣·대추·도토리·뽕은감·은행 등 수실이 3만5천666, 버섯 6천589, 약용식물 1천502, 수액 9만1천733, 산나물 3천340 등이다.

수산업 2015년 말 어업인구는 전업·겸업을 포함해 9천229가구에 2만1천59명이다. 2015년 연간 생산 수산물은 어류 3만9천M/T, 갑각류 1만1천M/T, 연체동물 7천M/T, 패류 3만M/T, 해조류 2만9천M/T, 기타 수산물 757M/T톤 등 모두 11만7천M/T에 4천67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제조업 2015년 12월 말 현재 1인 이상 제조업체는 모두 1만4천937개 업체이며, 종사자는 26만5천732명이다.

산업단지 2015년 12월 말 현재 국가 5, 일반 51, 도시첨단 2, 농공 92단지 등 150개 단지에 면적은 1억838만9천㎡, 입주업체는 2천316개, 업체에 종업원은 12만4천330명이며, 가동률은 98%에 이르고 있다.

무역 2015년 수출은 세계 교역량 감소 및 유가 하락으로 2014년 동기대비 전국은 8.0%의 수출 감소를 보였으나, 충남은 3.1% 수출 증가를 보이는 등 ‘충남 수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한해로 무역수지 흑자규모 또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015년 충남 총 수출액은 671억2천800만 달러로 2014년(651억1천200만 달러) 대비 3.1% 증가했으며, 총 수입액은 원유 수입 급감으로 231억6천700만 달러로 2014년(331억400만 달러) 대비 30% 수입이 감소했으나, 무역수지는 439억6천100만 달러 흑자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역대 충남 무역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이다.

또한, 전국 총 수출액은 5천269억100만 달러로 2014년 동기 대비 8%의 수출 감소를 보였으며, 총 수입액은 4천365억4천800만 달러로 2014년 동기대비 16.9% 감소로 무역수지가 903억5천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충남의 주력 수출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170.3%), 컴퓨터(19.2%), 자동차부품(12.6%) 평판디스플레이(1.7%)는 수출증가를 보였으며, 반도체(9.5%), 자동차(14.4%), 석유화학중간원료(15.1%), 합성수지(22.5%), 석유제품(23.1%)은 수출 감소를 보였다.

또한, 주력 수출국가별로는 베트남(80.0%), 호주(55.3%), 홍콩(34.3%), 미국(2.6%), 중국(1.6%)은 증가한 반면, 멕시코(6.6%), 일본(26.9%), 싱가포르(27.5%), 대만(28.4%), 슬로바키아(43.6%)는 2014년 동기대비 수출 감소를 보였다.

이같이 2015년의 무역여건은 연중 유가하락 지속 및 중국 경제성장 둔화, 엔화 약세 등 전반적인 수출부진을 보였으나, 충청은 對선진국 수출에서 개도국 지역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로 한류 열풍 등으로 해외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느끼는 한해였으며, ‘충남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개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 하는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모두 성장한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 주었다.

유통 및 물가 2015년 말 전통시장은 66개소로, 이 가운데 5일 정기시장이 17개소, 상설시장 49개소, 대형마트 22개소, SSM 40개소 등이 있다. 2015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2014년 12월 말 금융기관 점포 수는 1천14개로 은행 197, 비은행기관 817개이며, 금융기관의 수신현황(2015년 11월 말 현재)은 예금잔액 기준 58조7천638억원이며, 여신현황(2015년 11월 말 현재)은 50조7천678억원으로 나타났다.

사회

주택 2015년 말 현재 주택은 88만5천17호로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 52.4%인 46만3천898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이 47.6%인 42만1천119호를 차지했다.

또, 2015년 연간 건축허가는 총 1만9천493동에 연면적 1천56만4천264㎡였으며, 이중 주거용이 9천 동에 403만2천734㎡로 가장 많았다.

상·하수도 2015년 말 현재 급수 도시 내 총인구 209만7천명 가운데 급수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은 91.1%인 191만84명이다.

1일 1인당 급수량은 415ℓ였다. 또 하수도보급률은 71.6%를 보였고, 하수사용료는 461억원이 부과됐다.

도로·교통 2015년 말 현재 도로 총연장은 6천892km로 고속도로 430km, 일반국도 1천264km, 지방도 1천306km, 국가지원 지방도 353km 시·군도 3천539km 등이며, 포장률은 85.2%이다. 등록된 차량은 관용 4천623대, 자가용 92만5천804대, 영업용 3만8천797대 등 모두 96만9천224대이다.

이 중 승용차가 73.7%인 71만4천89대, 승합차가 4.7%인 4만5천567대, 화물차가 21.2%인 20만5천908대, 특수차가 0.4%인 3천660대이다.

환경 2015년 말 도내 폐기물관리구역 내 인구 209만9천346명이 배출한 생활쓰레기는 1일 2천22.7t으로 전량 수거 처리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 3천81개소, 수질 3천679개소, 소음 및 진동 3천472개소 등 모두 9천786개소이다.

보건 및 사회보장 2015년 말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3개소(지방의료원 4개소 포함)에 4천978개 병상, 병원이 42개소에 3천589개 병상, 의원이 986개소에 3천780개 병상, 정신병원이 18개소에 4천572개 병상, 치과병의원 508개소에 10개 병상, 한방병의원이 497개소에 272개 병상, 요양병원 61개소에 1만503개 병상, 노인전문병원 6개소에 831개 병상 등 총 2천131개소(2만8천535개 병상)의 의료기관이 있고, 보건기관은 보건의료원 27개소, 보건소 14개소, 보건지소 151개소, 보건진료소 233개소가 있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의사 3천215명, 치과의사 818명, 한의사 749명, 조산사 24명, 간호사·조무사·의료기사가 1만5천646명, 약사 1천152명 등 모두 2만1천604명이 종사하고 있다.

소방 2015년 말 현재 충청남도 소방본부와 1개 소방학교, 15개 소방서에 2천241명의 소방공무원과 1만327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으며 소방차량 545대, 통신장비 3천826대, 소방용수 5천25개소를 보유해 2015년 한해 화재 3천31건, 구조 2만5천994건, 구급 8만1천775건의 소방 활동을 펼쳤으며 9만6천85개소의 특정소방대상물과 9천693개소의 위험물시설이 도내에 설치되어 있다.

교육·문화

교육 2015년 유치원수는 503개소에 교원 2천119명, 원생 2만7천141명, 초등학교는 418개교에 교원 8천699명, 학생 11만5천839명, 중학교는 188개교에 교원 4천849명, 학생 6만5천155명, 고등학교는 116개교에 교원 5천426명, 학생 7만3천25명, 고등기술학교는 1교에 교원 11명, 학생 86명, 특수학교는 6교에 교원 282명, 학생 886명, 각종학교는 1교에 교원 13명, 학생 13명, 전문대학은 9개교에 교원 529명, 학생 1만8천35명, 교육대학이 1개교에 교원 86명, 학생 1천570명, 대학교가 19개교에 교원 6천792명, 학생 19만1천535명, 대학원은 62개교에 석사과정 9천286명, 박사과정 2천64명이다.

문화재 총 970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27, 보물 108, 사적 49, 명승 3, 천연기념물 15, 중요 민속문화재 25, 중요무형문화재 8점 등 235점이며, 지방지정문화재는 모두 421점으로 유형문화재 183, 기념물 161, 민속문화재 28, 무형문화재 49점 등이며, 문화재 자료는 314점이 있다.

문화시설 2015년 말 현재 영화관 16개소, 문예회관 17개소, 공공도서관 59개소, 시·군민회관 2개소, 시·군 문화원 16개소, 국립박물관 5개소, 공립박물관 22개소, 대학박물관 3개소, 사립박물관 16개소, 공립미술관 2개소, 사립 미술관 7개소가 있다.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25개소, 종합경기장 13개소, 생활체육공원 13개소, 국민체육센터 13개소, 장애인체육시설 4개소, 골프장 23개소, 승마장 1개소가 있다.

관광 주요 관광지로는 공주의 무령왕릉, 대천해수욕장, 온양·아산·도고·덕산온천, 당진의 왜목마을, 부여의 백제문화단지, 태안의 천리포수목원, 꽃지해수욕장 등이 유명하다. 특히 백제문화제를 비롯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열리는 각종 문화·관광·지역축제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2015년 관광숙박업은 관광호텔 17개소에 1천255객실, 휴양콘도미니엄 15개소 2천764객실, 가족호텔업 2개소 110객실 등이 있으며, 그밖에 전문휴양시설 3개소와 종합휴양시설 3개소, 종합유원시설 5개소, 일반 및 기타 유원시설 25개소, 한옥체험업 25개소 등이 있다.

문화행사 축제를 지역 관광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경쟁력 있는 11개 도내 축제를 선정해 중점 육성했다. 11개 축제는 문화관광축제 6개와 지역향토문화축제 5개이며, 문화관광축제로는 강경발효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금강여울축제가 개최됐고, 지역향토문화축제로는 논산말기축제, 칠갑산장승문화축제, 대한민국코미디페스티벌, 공주알밤축제, 바다황토축제 등이 개최됐다.

의회활동

원구성

〈의장〉 김기영

〈부의장〉 유익환, 이진환

〈정당별 의석〉 새누리당(30), 더불어민주당(10)

개요 2015년도는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건전한 감시·견제 및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공감의정', '실천의정', '창조 의정' 실현에 집중해 도민을 위해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자 노력한 한해였다.

안건처리 2015년 총 8회 120일간의 회기운영(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6회 60일)을 통해 조례·규칙의 제·개정 142건, 예산·결산 16건, 건의·결의 12건, 동의·승인 27건, 기타 62건 등 총 259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분야별 성과 도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생활임금 조례'를 각각 제정하는 등 도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왔다.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 완화 반대,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분쟁 촉구,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가뭄대책 마련 촉구와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현안에 대한 국비 확보에 주력했다.

아울러 지역 현안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포문화권발전지원 특위', '3농혁신 등 정책 특위'를 구성해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도민권의 대변을 위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4회 36명 110건), 당진항 도계분쟁 관련 긴급현안질문과 5분 발언(72명 78건)을 적절히 활용해 집행부의 감시·견제에 최선을 다했으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데 집중했다.

2015년 11월 6~19일(14일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산하기관(충남연구원 외) 등 82개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 423건(시정 47, 처리 225, 제안 151)의 조치를 요구했다.

52일간 99개소의 민생현장 및 사업장 등을 방문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도민의 불편사항 24건을 처리하는 등 민원의 근본적인 해소에 노력했다.

정책제안을 위한 6개 연구모임(88명)을 운영하며 결과를 조례발의 등 정책자료로 활용도록 집행부에 통보했으며 홈페이지에 게재해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사이버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해 동영상 제작해 홈페이지 및 SNS에 홍보했으며 영상과 회의록을 동시에 보는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운영했다. 또한, IT시대에 걸맞게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본회의·상임위 등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해 18만5천801건이 접속했다.


의회를 찾는 내방객 홍보를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동영상 상영하고 의회연혁, 하는 일, 원구성, 주민참여로 구성된 의정 홍보관과 역대 의원사진 및 시대별 의정활동 사진자료를 게시한 역사관을 설치해 청사 방문객(7천 158명), 본회의 방청객(1천283명)에게 의회의 역할에 대해 홍보했다.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의장선거, 2분 발언, 안건처리를 통해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를 체험하고 민주시민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청소년의회 교실에 26개교 1천154명이 참여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 입법 지원 활동으로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정토론회(15회)를 개최해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외국의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위해 미국 뉴저지주 의회, 중국의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으며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2016년 4월 예정)을 유치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



道花 : 백일홍

道木 : 은행나무

도청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도지사 : 송하진(宋河珍)

道鳥 : 까치

캐릭터 : 신명이

개관

연혁 고려 현종 9년(1018년) 전라남·북도인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쳐 처음으로 전라도라 칭하고 전주에 관찰사를 뒀으며 1896년 전국을 13개 도로 개편할 때 전라도를 남북으로 분할하고 전북에 26개 군을 뒀다.

1897년 구례군이 전남으로, 무장, 흥덕, 고창이 전북에 편입됐으며 1931년 전주면이 전주읍으로, 익산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이리읍으로 개칭됐고, 정주면이 정주읍으로 승격됐다. 1935년 10월 전주읍이 부로 승격, 완주군이 분리되고 1947년 이리읍이 이리부로 승격, 익산군이 분리된 후 1949년 8월 전주·군산·이리부가 시로 승격됐다.

1963년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금산군과 익산군 황화면이 충남으로 이관되고, 충남의 어청도와 개야도가 옥구군에, 전남의 위도면이 부안군으로 편입됐다.

1973년 7월 1일 완주군 봉동면이 봉동읍으로, 1979년 5월 1일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고 1980년 12월 1일 옥구군 옥구면과 미면이 각각 옥구읍과 미성읍으로 승격됐다.

1981년 7월 1일 정읍군 정주읍과 남원군 남원읍이 각각 시로 승격됐고, 1985년 10월 1일 전주시와 인접한 완주군 초촌면이 읍으로 승격됐으며 1988년 7월 전주에 완산·덕진 2개 출장소가 신설됐다. 1989년 1월 김제군 김제읍이 시로 승격되고 5월 1일 전주의 2개 출장소가 구청으로 각각 승격됐다.

1995년 1월 1일 옥구군이 군산시로, 전주시와 정읍군이 정읍시로, 남원군이 남원시로, 김제군이 김제시로 통합됐고, 1995년 5월 10일 이리시와 익산군이 익산시로 통합됐다.

면적·인구·행정구역 총면적은 전 국토 면적의 8.1%인 8천67.25km²이며 그중 임야가 4천493.6km²(55.7%)이고 논과 밭이 2천171.42km²(26.9%) 등이다.